양님.
저에겐 로망의 영역인 밴드생활을 하셨다니 너무나 낭만적입니다.

나의 모자람을 알고 있음에 대한 두려움이 양님에게도 크시군요.
저도 그렇습니다.

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높은터라 더 스스로를 자책하고 반성할 때가 많네요.
반성하고 자책한다고 과거가 변하진 않을텐데 말이죠 ㅎㅎ
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합니다.

나의 모자람은 내가 채우고 타인에게 바라지 않을 때,
서로의 시너지가 아름답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.
다름을 인정하지 않거나 내 모자람을 타인으로부터 다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서요.

오늘의 편지도 여러 단상을 떠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이제 진짜 봄이네요! 낭만적인 계절을 누립시다 양님.